

나주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적극 행정 펴겠다”

인수위, 시민신문고 민원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열어 윤병태 시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과감히 탈피해야”

나주시가 민선8기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신문고’ 접수 민원에 대해 탁상 답변이 아닌 현장 중심의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시민신문고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신문고는 ‘시민이 인수위에 바란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6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23일 간 운영됐다.

운영 결과 주민불편 사항, 정주여건 개선, 시장·시책건의, 숙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9건의 민원 사항이 접수됐다.

윤병태 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30개 소관부서별 추진 현황과 결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소관 부서별 민원 건수는 보건위생과 32건, 교통행정과 25건, 일자리경제과 21건, 건설과 18건, 산림공원과 14건 순으로 많았다.

접수 민원 229건 중 ‘종결’은 30건(13.1%), ‘추진 중’은 104건(45.4%), ‘장기과제’는 33건(14.4%)으로 구분됐다.

윤 시장은 현 시점에서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62건(27.1%)의 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민 건의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친절한 민원 응대를 당부했다.

윤 시장은 “장기과제나 추진 불가 사업의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 행동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된다”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탈피해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서비스를 적극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요구에 대한 선 “예산타령, 규정타령, 권한타령 3대 타령을 극복하고 공리를 통해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신뢰 행정 정착에 공직자 모두가 단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번 접수돼 해결된 민원 사항이 반복 건의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철저히 처리하고 꾸준히 관리해야한다”면서 “책상에 앉아 불성실,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신문고 건의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인수위 시민신문고 운영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시청 누리집 ‘365 시장실’을 시민과의 온라인 상시 소통 창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65 시장실 게시판은 시민 누구나 일상의 고충과 불편 사항, 현안사업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윤 시장은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과 소통

하는 ‘찾아가는 민박 간담회’도 이달 말부터 추진한다.

민박간담회는 매월 1회 20개 읍·면·동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현안사업장 등에서 저녁시간대 마을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자리로 마련된다.

윤 시장의 첫 민박간담회는 오는 27일 반남면 자미마을 마을경로당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이지유 작가 초청 북 콘서트 30일 강진군어린이도서관

‘이지유의 이지 사이언스’, ‘처음 읽는 우주의 역사’ 등을 쓴 이지유 작가가 강진을 찾는다. 강진군도서관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강진군어린이도서관에서 오전 ‘2022년 찾아가는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북 콘서트에는 천문학자인 이지유 작가가 강사로 나서 ‘별뿔별 아줌마 이지유가 들려주는 신나는 우주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2022년 찾아가는 북 콘서트’는 전남도립도서관이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주최하고 강진군도서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서트는 사회는 임정자 동화작가가 맡는다. 작가와의 만남과 더불어 태양계 행성 이야기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 태양계 밖의 우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콘서트장에는 태양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설치하고 장미성운, 말머리 성운, 일식, 월식, 블랙홀, 초신성 등 천문학 관련 사진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까지 80명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강진군도서관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전남도 제2호 민간정원인 담양 죽화경에서 23일부터 8월 말까지 유럽 수국축제가 열린다. <담양군 제공>

담양서 한여름 눈꽃송이 ‘유럽 수국축제’

군, 23일부터 민간정원 죽화경서
전남도 제2호 민간정원인 담양 죽화경에서 23일부터 유럽 수국축제가 열린다.

죽화경은 담양군 봉산면에 위치한 1만5000㎡ 규모의 정원으로, 500여 종의 초목과 꽃들이 어우러져 있다. 축제 기간 온 정원을 수놓은 새하얀 눈꽃송이 같

은 유럽 수국을 만끽할 수 있다. 정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사진 콘테스트도 열릴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유럽 수국이 만발한 죽화경 눈꽃정원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실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함평군,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실증사업 협의회

함평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실증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통한 유형별 냄새저감 최적 모델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축산업은 양질의 육류를 생산·공급해 왔으나,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잦아 축산 농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농가,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냄새저감 시설·장비, 미생물 활용 등 복합기술을 투입해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고, 축사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장성군은 최근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76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안전보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의식 고취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공일자리 안전 수칙, 재해사례별 사전 대처 방안,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름철 폭염 대비 근무 요령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도 공유했다.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장성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황룡강 고수부지 초회류단지 관리, 공공체육시설 휴식공간 조성 등



15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